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분리형 BW 허용안 국회 계류 중

채희석 변호사

1. 주요 내용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 종래 분리형 BW는 대주주가 사모 투자자와 약정하여 신주인수권만 저가로 매집하고 사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높은 채권금리를 제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닥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분리형 BW 발행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공모 방식으로 분리형 BW를 발행할 경우 대주주의 편법적 악용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감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사모 형태로 이를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분리형 BW를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50인 미만의 사모 발행도 공모로 간주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하위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